여수시 돌산읍, 민관협력통해 기초수급가구 청소봉사

관내 유관기관 민관협력으로 따뜻한 보금자리 탄생 저소득 독거노인의 주거지 내·외부 청소봉사 실시

최근 민관협력을 통해 여수시 돌산읍 백초마을 기초수급자 가구 청소봉사가 이뤄지고 있다.

돌산읍에서는 최근 여수시 관내 유관 기관과의 민관협력을 통해 컨테이너에 서 생활하는 저소득 독거노인의 주거지 내·외부 청소봉사를 실시했다.

대상가구는 돌산읍 백초마을에 거주 하는 어르신으로 만성질환 및 고령으로 기초수급보장을 받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해 집을 치우지 못한 채 집안 가득한 생활폐기물과 함께 비위생적인 환경

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대상자의 주거취약문제해결과 일상 생활유지를 위해 돌산읍지역사회보 장협의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여수 경찰서 및 문수종합사회복지관, 여천 NCC, 여수시의회가 힘을 모아 청소봉 사를 진행했다.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암 롤박스 지원으로 10t 상당의 쓰레기를 비워냈다.

또한 여천NCC에서 어르신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도배, 장판을 교체하 는 등 집수리사업을 진행 중이며, 여러 단체의 후원을 통해 생필품 및 가전제 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1년 10월 25일 월요일

여천NCC 노대영 총괄공장장은 "가 족도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 듣고 집수 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집수 리를 통해 어르신께 큰 힘이 되어 앞으 로 깨끗한 집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 시길 응원한다"고 밝혔다.

정덕영 돌산읍장은 "수많은 단체와 기관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 노력해준 덕분에 어르신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 인 민관협력과 지원을 통해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가진 관내 위기가구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 다.

여수=오상호기자



순천시 왕조2동 마중물보장협의체 '통합돌봄 케어팜' 텃밭 가꾸기 운영



순천시 왕조2동 마중물보장협의체는

최근 '통합돌봄 케어팜'텃밭가꾸기 사업 에서 기르고 가꾼 상추, 무, 시금치, 파 등

각종 채소를 관내 이웃 8가구에게 전달했

이번 나눔 행사는 마중물보장협의체 '통 합돌봄 케어팜'사업의 일환으로, 통합돌

봄 대상자 및 예방관리군 대상자들과 마

중물 위원들이 함께 텃밭 농작물을 기르

특히 이 사업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화

고 수확하는 주민 공동체 사업이다.

텃밭 가꾸기로 '나눔·힐링'

합하며 함께 어울릴 수 있다는 것에 그 의미가 크다.

문선주 위원장은 "관내 이웃 8가구에게 직접 기른 싱싱한 채소를 전달하게 되어 기쁘고, 한 여름 내려 쬐는 햇볕 속에서도 이웃들과 나눌 생각에 구슬땀을 아끼지 않은 위원님들과 통합돌봄 어르신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서숙자 왕조2동장은 "왕조2동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마중물 위원님들께 감사드 린다."며 "주민 모두가 행복한 왕조2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한편 '통합돌봄 케어팜'사업에는 코로나 19로 지친 정신적, 육체적 건강 회복을 위 해 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반려식물 원예 치유 문화교실도 운영하고 있다.

소천=김승호기자

함평군, 코로나19 결식우려 아동 35명 급식지원 나서



전남 함평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결식 이 우려되는 아동을 위한 급식지원에 나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추진

섰다.

함평군은 17일 "함평군 여성단체협의회 와 협력해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대 상으로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이달부터 12월까지 한시적 으로 추진되며, 기존 지원사업 대상에 포 함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다.

군은 1차적으로 결식우려 아동 35명을 발굴했으며, 올 연말까지 매월 2회 급식을 지원할 방침이다. 최근 함평군여성단체협 의회 회원들이 엄다면에 위치한 새마을 다목적회관에 모여 장조림 등 각종 밑반찬을 만들어 결식우려 아동들에게 전달했다. 함평=김광춘기자

무안읍, 100세 어르신에 장수지팡이 전달

제25회 노인의 날 기념

무안군 무안읍은 최근 제25회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100세를 맞이한 성내4리 김 모 어르신 댁을 방문해 장수지팡이 청 려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청려장은 명아주의 줄기로 만든 가볍고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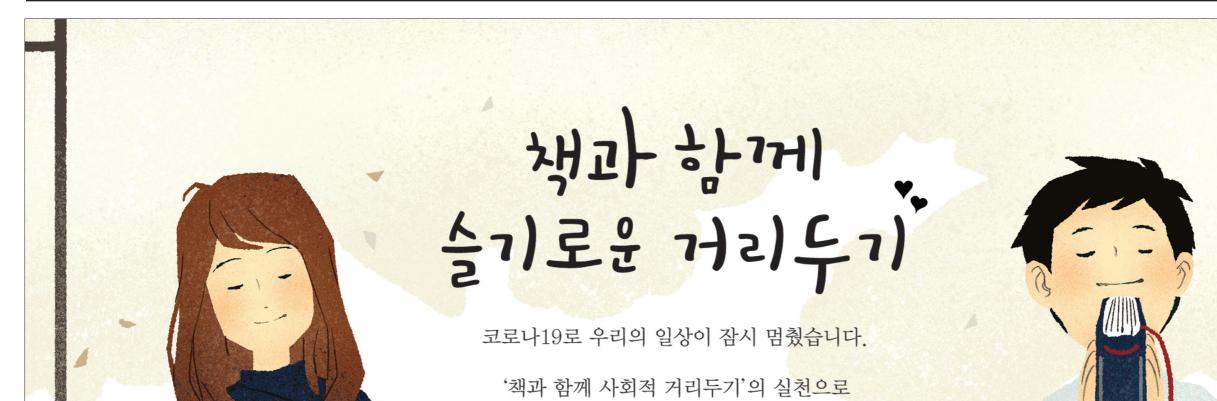
단단한 지팡이로 건강과 장수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다.

지팡이는 매년 100세가 된 어르신들에 게 대통령 명의의 축하서한, 장수기념 선 물과 함께 증정되고 있다.

이날 청려장을 전달받은 어르신은 "매 번 찾아와 안부를 묻고 따뜻한 말을 건네



주시는 이웃들께 항상 감사하다"며"100세를 맞아 전달받은 청려장을 소중하게 잘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문화체육관광부